**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제 2 부>**

**스물 아홉번 째 주일(주의 날) (LORD’s Day 29)**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빵을 자신의 몸이요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또는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으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예한다고 말하였는가요?**

**답) 그리스도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치시려 한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여 살아가게 하듯이,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는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가지며 살아 가게 하는 참 음식입니다.(1)**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눈에 보이는 표식과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확신시켜 주려 하십니다.**

**첫째, 우리 입으로 이 거룩한 표식들을 먹고 마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확실하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분명히 참예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2)**

**둘째, 그리스도의 당하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순종이 마치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죄 값을 치른 것인양 우리가 직접 겪은 우리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3)**

**참조 성경귀절들:  
(1) 요한복음 6:51, 55.**

**(2) 고린도전서 10:16, 17; 11:26.**

**(3) 로마서 6:5-11.**

|  |
| --- |
| **Question 79. Why then does Christ call the bread His body and the cup His blood, or the new covenant in His blood, and why does Paul speak of a participation in the body and the blood of Christ?**  **Answer:**  **Christ speaks in this way for a good reason:**  **He wants to teach us by His supper that as bread and wine sustain us in this temporal life, so His crucified body and shed blood are true food and drink for our souls to eternal life. (1)**  **But even more important, He wants to assure us by this visible sign and pledge,**  **first, that through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we share in His true body and blood as surely as we receive with our mouth these holy signs in remembrance of Him,(2)**  **and second, that all His suffering and obedience are as certainly as ours as if we personally had suffered and paid for our sins.(3)** |

**Bible References:**

1. **John 6:51, 55.**
2. **1 Corinthians 10:16, 17; 11:26.**
3. **Romans 6:5-11.**

여기서 주님의 만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무엇을 하셨는 지를 말씀하신다:

그분의 희생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 지를 가르치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상쾌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영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

이제 잠깐 이미 배운 것과 앞으로 배울30번째 주의 날에 대해 정리하고 미리 살펴 보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28-30번째 주의 날들에서 두 번째 성례인 성찬에 관해 가르친다.

이를 요약해 보자:

문답 75: 주의 만찬에서 표식과 약속이 확실히 눈에 보이게 형상화 되었고, 인으로 새겨졌다.

문답 76: 주의 만찬에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 지를 밝혔다.

문답 77: 성경에서 그 약속이 담긴 본문 말씀들이다.

문답 78: 표식과 그것이 약속한 것이 무엇을 뜻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문답 79: 표식과 그것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 지를 밝혔다.

문답 80: 주의 만찬과 로마교의 미사와의 차이점을 밝혔다.

문답 81: 주의 만찬이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누가 바람직한 그 잔치의 초대손님들인 지를 밝혔다.

문답 82: 교회가 주님의 만찬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야 하며, 또 어떻게 그리 시행해야할 지를 밝혔다.

(Here, the LORD’s Supper speaks about what Christ did for us: His sacrifice, completed on the cross; and about what He does in us by His Spirit: He nourishes and refreshes us, strengthens us, and renews us to eternal life.

Now we can pose for a moment and refresh ourselves, the preview what are following up to LORD’s Day 30. The Heidelberg Catechism devotes three LORD’s Days 28-30 to its teaching about the second sacrament. In summary, it discusses the following:

Q & A 75: the sign and the promise are signified and sealed in the LORD’s Supper;

Q & A 76: the content of the promise of the LORD’s Supper;

Q & A 77: the Bible texts where we can find the promise;

Q & A 78: of what connection between the sign and what is promised in the sign does not consist;

Q & A 79: of what connection between the sign and what is promised DOES consist;

Q & A 80: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RD’s Supper and the papal mass;

Q & A 81: for whom the LORD’s Supper is instituted and who are the desired guests at the Feast;

Q & A 82: that the church must keep the LORD’s Supper holy and how it must do that.)